8주차: 태극의 그림을 글로 설명하다

(1) 朋黨論 _ 歐陽脩
붕 당 론 구 양 수

※ 구양수의 붕당론 후반부 강의 입니다.
전반부 강해는 7강을 참고하세요.

堯之時 小人共工驩兜等四人 爲一[1]朋: **요임금 때의 소인은 공공과 환두 등 네 사람이 하나의 붕을 만들었습니다.**
요 지 시 소 인 공 공 환 두 등 사 인 위 일 붕

君子八元八凱十六人 爲一朋: **군자의 팔원과 팔개 등의 16인이 하나의 붕을 만들었습니다.**
군 자 팔 원 팔 개 십 육 인 위 일 붕

舜[2]佐堯 退四凶小人之朋: **요임금을 순이 도와 네 사람의 흉악한 붕을 물리쳤습니다.**
순 좌 요 퇴 사 흉 소 인 지 붕

而[3]進元凱君子之朋: **팔개와 팔원의 군자의 붕을 나아가게 하여**
이 진 원 개 군 자 지 붕

堯之天下大[4]治: **요의 때의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습니다.**
요 지 천 하 대 치 세상의 질서가 잡혔다.

及舜自爲天子: **순이 천자가 되었을 때에 미쳐서**
급 순 자 위 천 자

而皐夔稷契等二十二人 竝列于朝: **고기와 작개 등 22명의 사람이 조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 고 기 직 계 등 이 십 이 인 병 렬 우 조

---

1) 朋(붕): 友(우)와 같이 친구를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같이 배운 사람, 뜻이 같은 사람을 이를 때 쓴다. 삶의 방향성을 같이 하는 이다. 붕당은 긍정적인 의미의 붕당이다. 조선의 붕당도 초기에는 단순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닌 성리학의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서도 나눠진다. 담론의 풍부와 의식 고양의 과정이었다. 중・후기에는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일제시기에는 갈등하는 양상만 강조하여 그것이 조선인의 민족성으로 치부하였다.
2) 佐(좌): 돕다는 뜻으로 쓰였다.
3) 進(진): 신하의 입장에서는 나아갈 進(진), 물러날 退(퇴)를 쓴다. 임금의 입장으로 하면 쓸 用(용), 버릴 捨(사)를 쓴다.
4) 治(치)의 반대말 難(난)에도 다스리다는 뜻이 있다.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다스리기 시작하다는 함의로 해석된다.

更相稱美 更相推讓: **번갈아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추천하고**
경 상 칭 미 경 상 추 양

凡二十二人爲一朋 而舜皆用之: **22인 모두 하나의 붕이 되었고 순은 모두를 등용했습니다.**
범 이 십 이 인 위 일 붕 이 순 개 용 지

天下亦大治: **이 때 세상은 크게 다스려졌다.**
천 하 역 대 치

書曰 5)紂有臣6)億萬 惟億萬心: **서경에 이르길 "주왕 때 신하가 억만 이었고, 그 마음들도 그만큼 많았는데**
서 왈 주 유 신 억 만 유 억 만 심

周有臣三千 惟一心: **주나라 시대엔 삼천의 신하가 있었는데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주 유 신 삼 천 유 일 심

紂之時 億萬人各異心: **주왕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 하여**
주 지 시 억 만 인 각 이 심

可謂不爲朋矣: **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 위 불 위 붕 의

然紂以此亡國: **그러나 주왕은 이 때문에 나라를 망쳤습니다.**
연 주 이 차 망 국

周武王之臣 三千人爲一大朋: **주나라의 무왕 때 신하는 삼천 인이 하나의 붕이 되어**
주 무 왕 지 신 삼 천 인 위 일 대 붕

而周用以興: **주나라가 이를 등용하여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 용 이 흥

後漢獻帝時: **후한 헌제 시대 때**
후 한 헌 제 시

盡7)取天下名士 囚禁之 目爲黨人: **천하의 명사들을 모두 모아서 가두고 구금하여 당인이라 지목하니**
진 취 천 하 명 사 수 금 지 목 위 당 인

---

5) 紂: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이다. 대명사로 폭군으로 쓰이기도 한다.
주

6) 億萬 그 수가 정말 억 만 이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 만

7) 取 耳와 又를 합친 말이다. 전쟁 때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여 적군의 귀나 코를 잘라 증명하였다.
취 이 우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及黃巾賊起 漢室大亂: **황건적이 일어날 때에 미쳐서 한나라이 조정이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급 황 건 적 기 한 실 대 란

後方悔悟 盡解黨人而釋之: **뒤에 후회를 하여 당인을 모두 석방시켰지만**
후 방 회 오 진 해 당 인 이 석 지

然已無救矣: **이미 다 가버려서 (대란에서)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연 이 무 구 의

唐之晚年 漸起朋黨之論: **당나라의 끝자락에 점점 붕당의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당 지 만 년 점 기 붕 당 지 론

及昭宗時 盡殺朝之名士: **소종 때 조정의 명사를 모두 죽였습니다.**
급 소 종 시 진 살 조 지 명 사

或投之黃河曰: **황하에 명사들을 던지며 말하길**
혹 투 지 황 하 왈

此輩淸流可投濁流 而唐遂亡矣: **"이 무리들은 깨끗한 물이들이니 더러운 물에 던져도 되겠구나."라 하였습니다. 이에 당나라가 마침내 망하였습니다.**
차 배 청 류 가 투 탁 류 이 당 수 망 의

夫前世之主 能使人人異心不爲朋 8)莫如紂: **앞선 시대의 주군 중에서 사람마다 다른 마음을 먹게 하여 붕이 되지 못하게 한 자 중에는 주왕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부 전 세 지 주 능 사 인 인 이 심 불 위 붕 막 여 주

9)能禁絶善人爲朋 莫如漢獻帝: **선인들이 붕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잘라낸 이 중에는 한나라의 헌제만한 이가 없습니다.**
능 금 절 선 인 위 붕 막 여 한 헌 제

能誅戮淸流之朋 莫如唐昭宗之世: **맑은 무리들의 붕을 능히 베고 죽인 것에는 당나라 때 소종만한 이가 없습니다.**
능 주 륙 청 류 지 붕 막 여 당 소 종 지 세

---

8) 莫 -한 사람/것/경우가 없다.
막

예) @@天下莫强 이라고 한다면 천하에 @@만큼 막강한 이가 없다는 뜻이다.
천 하 막 강
莫上莫下: 직역하자면 더 위에 있는 것도 더 아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막 상 막 하

9) 能 능히, 거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忍인데 忍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닌 할까, 말까 고민되는 마음을 참아내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맹자는 不忍人之心의 마음을 仁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능 인 인
불 인 인 지 심 인

然皆亂亡其國: **그러나 대게 (그들은)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연 개 란 망 기 국

更相稱美推讓而不自疑 莫如舜之二十二人: **서로 번갈아 상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순의 22인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경 상 칭 미 추 양 이 부 자 의 막 여 순 지 이 십 이 인

舜亦不疑而皆用之: **순 또한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모두 등용하였습니다.**
순 역 불 의 이 개 용 지

然而後世 不誚舜[10]爲二十二人朋黨所欺: **그러나 후세에 순이 22명의 붕당에게 속았다 하지 않고**
연 이 후 세 불 초 순 위 이 십 이 인 붕 당 소 기

而稱舜爲聰明之聖者: **순을 총명한 성자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은**
이 칭 순 위 총 명 지 성 자

以其能辨君子與小人也: **능히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 능 변 군 자 여 소 인 야

周武之世 擧其國之臣三千人 共爲一朋: **주나라의 무왕 때 신하 삼천을 들여 하나의 붕으로 삼았습니다.**
주 무 지 세 거 기 국 지 신 삼 천 인 공 위 일 붕

自古爲朋之多且大 莫如周: **옛날부터 붕을 삼는 것 중에 많고 큰 것 중에선 주나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고 위 붕 지 다 차 대 막 여 주

然周用此以興者: **그러나 주나라가 이 붕당을 등용하여 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연 주 용 차 이 흥 자

善人雖多而不厭也: **선인들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싫어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선 인 수 다 이 불 염 야

夫興亡治亂之迹 爲人君者可以鑑矣: **흥망과 치란의 흔적을 사람의 임금된 자는 거울로 삼을만할 것입니다.**
부 흥 망 치 란 지 적 위 인 군 자 가 이 감 의

---

10) 주어 爲(위) B 所(소) A(동사): 주어는 B가 V하는 바가 되다. 즉, 당한다. 여기에서 爲(위)나 所(소)가 생략되어 나오기도 한다.

以(이) A 爲(위) B: A를 가지고 B를 삼다.

(2) 太極圖說 _ 周濂溪
태 극 도 설 주 렴 계

●태극도설 소개

: 태극도에 대한 설명을 쓴 글이다. 태극은 주역의 기본 틀이다. 장자에서도 쓰이지만 주역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주림계는 성리학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주희는 선배들의 이론을 잘 집대성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태극도설은 직역보다는 논의가 중요하다. 당시의 도가와 불가에서 논의되던 것을 유가적인 의미로 풀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가에는 선진유가와 원시유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원시유가는 인성을 중시하여 우주론에 취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노장은 천도, 즉 세상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했다. 위진 남북조 때에 위진 현악이라고 하여 도가의 영향이 많고 불가의 우주론과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태극도설은 유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성과 우주론을 합일하였기 때문이다. 수양에 대한 사상적 철학적 근거가 있다.

太極圖說 _ 周濂溪
태 극 도 설 주 렴 계

: 천도와 인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진다.

(천도)

無極而太極: 11)**태극에는 극이 없다.**
무 극 이 태 극

太極動而生陽: **태극은 움직여 양을 낳는다.**
태 극 동 이 생 양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극이 극에 달하면 정이 되고, 정이 되어 다시 음을 낳는다. 정이 극에 다다르면 동으로 다시 돌아온다.**
동 극 이 정 정 이 생 음 정 극 복 동

一動一靜 互爲其根: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여 서로의 근본이 되어준다.**12)
일 동 일 정 호 위 기 근

---

11) 즉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역의 기본 틀이다. 주역은 그 운세보다 행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보던 貞人(정인)은 사회 핵심적인 인물로 자연의 변화를 주역의 해석의 근거로 삼는다. 대게는 개인의 생애가 아닌 국가의 대소사를 점쳤는데 이를 통해 여론수렴의 효과와 여론 제어효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2) 노자는 動(동)의 근본을 정이라고 본다.

分陰分陽 13)兩儀立焉: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어 양의를 세웠다.**
분 음 분 양 양 의 립 언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양이 변하고 음이 합쳐져서 수, 화, 목, 금, 토를 낳는다.**
양 변 음 합 이 생 수 화 목 김 토

五14)氣順布 四時行焉: **다섯가지 기운은 자연스럽게 퍼져 사시가 운행된다.**
오 기 순 포 사 시 행 언

五行一15)陰陽也 陰陽一太極也: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오 행 일 음 양 야 음 양 일 태 극 야

太16)極 本無極也: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태 극 본 무 극 야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오행이 생겨날 때는 각각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오 행 지 생 야 각 일 기 성

無極之眞 17)二五之精 妙合而凝: **무극의 진수와 二五의 정수가 묘하게 합치되고 응결이 되어**
무 극 지 진 이 오 지 정 묘 합 이 응 이 오

乾道成18)男 坤道成女: **하늘의 도가 남자를 이루고 땅의 도가 여자를 이룬다.**
건 도 성 남 곤 도 성 녀

二氣交感 化生萬物: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낳는다.**
이 기 교 감 화 생 만 물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만물이 태어나고 변화하는 것에는 극이 없다.** 19)
만 물 생 생 이 변 화 무 궁 언

(인성)

惟人也得其秀而最靈: **인간이 가장 빼어난 것을 얻어서 가장 신비하다.**
유 인 야 득 기 수 이 최 영

形旣生矣 神發知矣: **형이 이미 생기고 나서 신묘한 것들 나타나** 知**(지각활동)**
형 기 생 의 신 발 지 의 지

---

13) 兩儀, 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즉 여기서 양의는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 언덕 阝는 해가 잘 드는 곳과 잘 들지 않는 곳으로 나눠진다.
양 의 의
14) 氣 는 물질인가? 어떤 성질을 취하면 물질성을 띄기도 한다.
기 부
15) 陰陽 왜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할까. 혹은 암수나 밤낮은 왜 그 반대로 쓰지 않을까. 모계사회 때 처음 생성되어 그렇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 양
16) 極 지붕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을 의미한다. 기준이라는 뜻도 있다.
극
17) 二五 二는 음양, 五는 오행을 가리킨다. 전국시대 때는 음양학파와 오행학파가 나눠져있었다고 한다.
이 오 음 양 오 행
18) 男: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암과 수 즉 대응되는 것 중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용한 것이다. 男, 女는 성질이 구체화된 표본으로 음양이 형상화된 실체기 때문이다.
남
19) 여기까지 보면 도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다음 내용인 인성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도가와 유가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도 가 적 이

가 생긴다.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20]5가지의 性이 (외물과 만나) 느끼고 움직여 선이나 악으로 나뉘니 만사가 생긴다.
오 성 감 동 이 선 악 분 만 사 출 의 성

聖人定之 以[21]中正仁義而主靜: 성인이 그것을 중정인을 가지고 안정시켜 정을 주요한 것으로 삼는다.
성 인 정 지 이 중 정 인 의 이 주 정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사람의 표준을 세웠다. 그럼으로 성인은 천지와 함께 덕을 합치시키고
입 인 극 언 고 성 인 여 천 지 합 기 덕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또 성인은 일월과 함께 밝음을 일치시키고, 성인은 사시와 함께 순서를 일치시킨다.
일 월 합 기 명 사 시 합 기 서

鬼神合其吉凶: 성인은 귀신과 함께 길흉을 합치시킨다.
귀 신 합 기 길 흉

君子修之吉: 군자는 그것을 수양하여 길하고
군 자 수 지 길

小人悖之凶 故曰: 소인은 그것을 어그뜨려 흉하게 된다.
소 인 패 지 흉 고 왈

立天之道曰 陰與陽: 하늘의 도를 세우는 것으로 말하자면 음양이고
입 천 지 도 왈 음 여 양

立地之道曰 柔與剛: 땅의 도를 세우는 것을 유와 강이라고 한다.
립 지 지 도 왈 유 여 강

立人之道曰 仁與義: 사람의 도를 세운다고 말하면 인과 의라고 한다.
립 인 지 도 왈 인 여 의

又曰 原始反終: 도를 말하자면 근본을 캐고 종으로 돌아가
우 왈 원 시 반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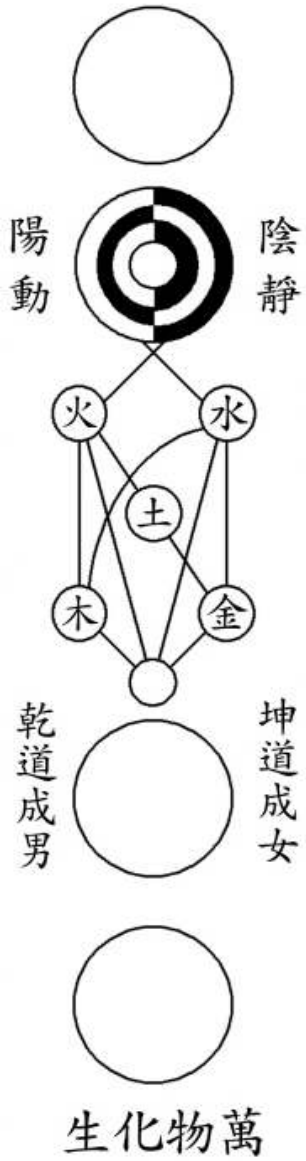
故知死生之說 大哉: 그럼으로 죽고 삶을 말하는데 크다.
고 지 사 생 지 설 대 재

易也 斯其至矣: 이것이 그 지극함이다.
역 야 사 기 지 의

---

20) 인, 의, 예, 지, 심을 말한다.
21) 中正仁義 올바르고 곧은 인의를 가지고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 정 인 의

●태극도



1. 두 번째 것이 무극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태극의 모양은 극에 달하여 양과 음이 되고 서로를 번갈아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화 된 무언가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만물이 화생하는 지점이다.